

인터베트코리아(주)

▶ 엠에스디동물약품 출범



인터베트코리아(주)(대표이사 서승원)가 엠에스디동물약품(MSD Animal Health)의 출범을 기념하여 지난 7월 12일 서울 본사에서 축하행사를 가졌다.

지난 6월 29일에 공식적으로 엠에스디동물약품이 전세계적으로 출범한 이후, 임직원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첫 번째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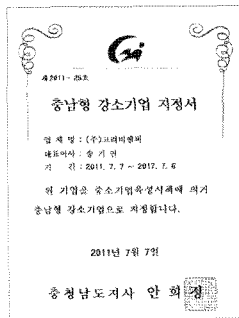
새로운 회사명 출범은 동물약품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업계의 최고가 되기 위한 엠에스디 본사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날로 다양해지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동물약품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통합적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엠에스디동물약품은 수의약품 및 백신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2010년에 약 29억 달러를 판매한 바 있다(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P94 참조).

(주)고려비엔피

▶ 충남형 강소기업 선정



(주)고려비엔피(대표이사 송기연)는 지난 7월 7일 충남도청으로부터 '충남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충남도는 지난 4~5월 동안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재무성과 기술, 해외

경쟁력, 경영능력, 일자리 창출 등 2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3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동물용의약품 업체로는 유일하게 (주)고려비엔피가 선정되었다.

고려비엔피 관계자는 "금번 충남형 강소기업 선정은 당사의 기술력 및 경쟁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앞으로 우수한 동물용의약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충남형 강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종업원 50~3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을 뽑아 2017년까지 자금과 판로, 인력, 기술 등을 집중 지원, 중견기업 성장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재)충남테크노파크 동물자원센터, 공장 방문

(재)충남테크노파크 동물자원센터가 주관이 된 참관단이 국내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본사 공장을 방문했다.

(재)충남테크노파크 동물자원센터는 지식경제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우수기업을 벤치마킹하여 기업 간의 정보교류 및 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한 도내 우수기업을 육성하고자 '우수기업 벤치마킹 및 마케팅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위한 대상기업으로 (주)고려비엔피를 선정했다.

참관단들은 본사 공장을 방문하여 생산라인을 견학하고 동물약품 및 동물자원 제품과 관련된 마케팅방법에 대한 세미나 시간을 가지며, 서로 간에 유용한 정보들을 교류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

▶▶ '2011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선정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이사 이보균)가 포춘 코리아가 주관하는 '2011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선정됐다.

지난 7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모범적인 윤리경영 사례를 발굴, 투명성과 윤리의를 높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 양극



화를 완화하지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종 시상 기업은 공모를 통해 신청한 기업을 제출한 공적서를 토대로 투명경영·가치경영·혁신경영·인재경영·미래경영 등 5개 분야를 엄밀하게 심사해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세계적 리더가 된다는 비전 하에 ▲윤리적인 기업 운영 ▲함께하는 지역사회에 봉사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지원 ▲다양한 인재 양성 등 좋은 시민으로서 기업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왔다.

이보균 대표이사는 "1967년 창립 이래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이번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수상은 지난 반세기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앞으로도 윤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이프(SIFE) 국가대표 선발전 후援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 7월 8일 학생들이 경제금융지식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인 사이



프(SIFE) 대학생 경제봉사 동아리의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을 후원했다.

한국 사이프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25개 대학, 2,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수들이 참여하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으며, 매년 한 차례 대학생들이 그 동안 수행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심사위원들은 각 팀을 프로젝트가 지닌 사회, 경제적 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이번 선발전은 지난 7월 7일~8일까지 양일간 홍익대학교 홍문관에서 총 21개의 대학교에서 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지난 2009년 이래 경제소외계층을 위한 대학생 경제 동아리 사이프 코리아를 후원해 왔으며, 매년 사이프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카길애그리퓨리나 임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심사하고 격려했다.

(주)카길애그리퓨리나는 문화재단을 통한 장학금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주)우성사료

▶▶ 하반기 전체 영업회의 실시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지난 7월 15~16일 양일간 충남 덕산 스파캐슬에서 우성 영업조직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전체 영업회의'를 실시했다.

올 상반기는 FMD로 인해 축산시장 전체가 힘든 시기였으며 그 아픔을 치유할 겨를도 없이 축산업의 생존을 위한 비장한 마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했다.

(주)우성사료는 지난 상반기 FMD 상황 속에서도 위기상황 조기종식을 위해 현장 최 일선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한편 축산업 재건을 위해 축산인 희망 나누기 캠페인 '다시 뛰는 축산인' 활동을 전개해 실의에 빠진 축산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지금도 현장에서 축산업의 재건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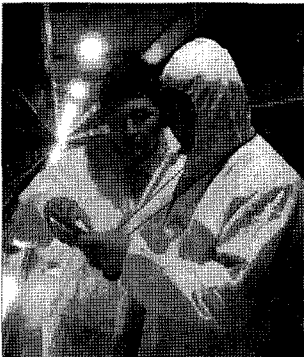
이날 행사를 주관한 우성사료 표광수 상무는 "무더위로 인해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서비스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하절기 더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료내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조치에 따라 본격적인 생산성 싸움

의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주)우성사료는 유럽의 축산 선진국과의 기술제휴와 오랜 전통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2년여 전부터 무항생제 제품과 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시험사육까지 마친 상태에서 하반기를 맞이한 만큼 올바른 현장 적용을 위해 이젠 축종별 전문가들이 나설 때라고 강조하고 우성사료 영업조직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주)트루라이프

▶▶ 흑서기 대비 양계농가 컨설팅 강화



(주)트루라이프(대표이사 정세진)는 최근 장마 이후 흑서기 대비를 위한 양계 컨설팅 지침을 발표하고, 고객농장별 주요 체크포인트 배포와 1:1 맞춤 컨설팅을 강

화하는 등 발빠른 대처로 농가 실질소득 증가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매년 폭염과 폭우, 태풍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유례없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작년보다 이상기후의 발생빈도 및 강도가 악화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날씨 변화에 특히 민감한 가축인 닭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양계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주)트루라이프는 지난 6월부터 '흑서기

대비 양계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흑서기 사양관리 주요 체크포인트를 선정해 각 고객농가에 배포했고, 담당 컨설턴트가 흑서기 대비 집중 컨설팅 활동을 일찌감치 펼치고 있다.

먼저 계사 환경 및 사양관리를 통한 닭의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 철저한 시설관리를 통한 적절한 온·습도 및 환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념할 것을 농가에 알리고 있다.

다음으로 사료 섭취량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공급되는 영양소를 계군에 맞게 재설계하여 급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계군별 체중 변화·혈청 측정과 난중·음수량 체크 등 생산성의 변화요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다.

트루라이프의 이러한 한발 앞선 농장 컨설팅은 사양가의 만족도가 매우 크다. 경기도 이천의 한 농장주는 "5월말부터 흑서기를 미리 대비하자는 컨설턴트의 제안으로 발전설비 점검부터 계군 모니터링까지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얼마 전 장마와 때이른 무더위에도 강건한 계군과 최고의 산란율을 유지하고 있다. 모양내기가 아닌 실증적인 활동으로 농가 수익을 크게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03년 국내최초 양계분야 컨설팅을 시작한 트루라이프는 흑서기 양계농장 관리에 대한 다년간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여름철에도 농장 생산성을 최고로 유지해 농가 수익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농장 컨설팅 문의 : (032)527-6913~4

(주)농협목우촌

▶▶ 여름철 간편조리 삼계탕 수요 늘어



무더운 여름나기를 위해 건강관리가 중요시 되는 요즘, 유통점과 온라인몰에서는 갖가지 보양식 판매전이 한창이다. 그 중에서도 요즘 주목 받는 것이 보양식에 편의성을 더한 제품들이다.

특히 맛별이·싱글족 가구의 증가로 짧은 시간에 간단히 조리할 수 있는 간편 가정식(HMR : Home Meal Replacement) 형태의 보양식 매출이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농협목우촌(대표이사 양두진)이 내놓은 간편조리 삼계탕류 제품들은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재료만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목우촌의 간편조리 삼계탕의 판매실적은 지난 초복에서 중복 사이에서만 20여 만 개 판매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큰 폭의 신장을 기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판매 호조는 최신설비의 제품력과 국내산 원료만을 쓰는 차별화 전략이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목우촌은 복성수기 준비와 수출을 위해 음성공장 내에 삼계탕 전용라인을 증설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해왔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생산량도 부족해 일부제품을 OEM으로 생산·공급했고 현재도 음성의 열처리공장은 말복(8월 13일)에 대비해 주야간 구분 없이 생산에 한창이다.

목우촌 삼계탕류 제품은 다양한 스펙과 단량으

로 선택의 폭이 넓다. 조리 간편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손쉽게 삼계탕을 즐길 수 있도록 출시한 '안심 삼계탕(1kg)'은 신선한 영계를 깨끗이 손질하여 국내산 찹쌀과 인삼, 대추 등의 각종 한방 재료를 함께 넣고 홈메이드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다. 끓는 물에 포장상태 그대로 넣어 조리하는 간편식이며 상온보관으로 편의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삼계탕에 각종 대표 보양 식재료를 결합한 제품도 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한 옷물을 사용해 구수하고 진한 전통의 맛을 재현한 '안심옷닭(1kg)', 웰빙 이미지의 누룽지와 오곡의 조화로 구수한 육수와 쫄깃한 맛이 일품인 '누룽지오곡삼계탕(600g)', 전복이 그대로 들어있어 시원함까지 더한 '전복삼계탕(800g)' 등이 있다.

신규 증설된 수출주도형 공장에서 생산된 목우촌 삼계탕의 내수판매호조는 해외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CJ제일제당

▶▶ 유종하 사료사업부문장 취임



지난 7월 7일 서울 쌍림동 CJ제일제당 본사에서 신임 유종하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장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신임 유종하 부문장의 취임 축하를 위해 사료조직원 외에도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그룹의 경영진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각국을 대표하는 법인장과 현지 임원들이 멀티화상시스템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CJ사료사업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유종하 부문장은 취임사를 통해 “글로벌 사료사업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CJ사료사업을 맡게 되어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2020년 아시아 TOP5 글로벌 사료/축산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봉에서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유종하 부문장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소통’이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에 있어 구성원들간의 상호응집력을 높이고 근로의욕, 협동심, 업무만족을 높이며 이는 결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로 연결된다.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유종하 부문장은 취임식 이후 각 부문별 업무보고만 받고 즉시 현장을 뛰어들어 ‘고객의 소리’에 귀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유종하 부문장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만이 기업의 사명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향후 CJ사료사업을 세계수준의 제조경쟁력 확보와 함께 R&D기반의 최고의 제품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축산물, 항생제 첨가금지 이슈에 발맞춰 친환경사업분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게 연구인력 및 시설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고객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ONLYONE적인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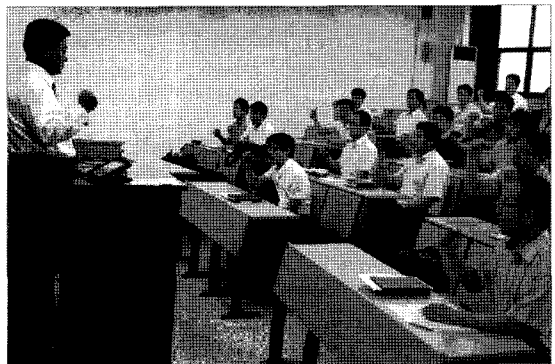
한편 유종하 CJ제일제당 사료사업부문장은 30여년간 CJ제일제당에서 근무한 정통 CJ맨이다.

CJ제일제당 내 모든 사업장을 섭렵했으며 생산,

품질, 영업 등 다양한 직무의 리더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팔목할 만한 성장을 견인해왔다.

두산생물자원(주) 백두사료

▶▶ 2012년 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샵 실시



두산생물자원(주)(대표이사 박근호) 백두사료 영업본부는 지난 7월 12일 ‘2012년 전략수립’을 위해 본사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한 중앙대학교에서 전략워크샵을 실시했다.

백두사료는 중앙대학교와 연구협력협약 체결 후 고품질의 신제품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객과 기업의 가치를 위한 최고의 전략수립을 위해 영업본부 DFC들은 축종별 서비스전략과 지점별 Action Item을 도출하여 시장현황에 적합한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6월 목표달성과 최고의 성과를 보여준 영업본부 5명의 DFC에 대한 포상이 시행되었다.

백두사료 영업본부는 시장상황을 고려한 최상의 전략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성적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